

한국 정보기술 분야 국제표준화 총회(ISO/IEC JTC 1) 개최

- 사물 인터넷(IoT)* 작업반 설립 및 의장단 대거 진출 등 성과 -

□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(원장 서광현)은 지난 11월5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서 정보기술 분야 최상위 국제표준화 정책 의결기구인 ISO/IEC JTC 1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.

○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는 이번 회의는 19개국에서 약 150여명의 각국 대표단과 JTC 1 의장단이 모두 참가하여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 인터넷(Internet of Things)표준화를 위한 특별작업반을 신설하고, SNS, 모바일 등 미래 정보기술 분야의 표준화 추진에 대한 공동 인식을 도출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이루었다.

* **사물 인터넷(Internet of Things, IoT):** 고유하게 식별 가능한 사물(Things)이 만들어낸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하는 환경을 의미

□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를 통하여 IT산업 분야의 기술 선도 뿐만 아니라 표준화 분야에서도 국제선도국으로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.

○ 주요 성과 중 하나로써 최근 가트너가 발표한 2013년도 10대 전략기술 중 하나인 사물 인터넷 표준화를 위해 특별작업반인 'SWG on IoT'* 설치를 제안하여, ETRI 유상근 선임연구원과 김형준 팀장이 각각 국제의장과 간사로 선임되는 성과를 이루었고,

* SWG on IoT: Special Working Group on Internet of Things

○ 아울러, 우리나라가 의장직을 수임하고 있는 센서네트워킹 분야(WG 7) 표준화와 관련하여 센서네트워크 기술과 더불어 사물간 통신(M2M)에 대한 표준화까지 그 작업영역을 확대하였으며, 김용진 박사(모다정보통신)가 의장직에 재 선임되었다.

○ 현재 정보기술 분야 국제표준화기구(JTC 1)에서 우리나라가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스템간 정보통신(SC 6, 충남대 김대영 교수), 컴퓨터그래픽스 및 이미지처리(SC 24, 한림대 김하진 교수) 분야에서 의장직에 재 선임되었으며, 이 밖에 문서표현 및 처리 언어(SC 34, 성균관대 오삼균 교수) 분야에서도 의장을 맡고 있다.

※ 현재 JTC 1에는 총 19개의 기술위원회(SC)가 존재하며, 3개 위원회의 의장직을 우리나라가 수임하고 있음

□ 기술표준원은 금번 JTC 1 제주 총회를 통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표준화에 이어, 최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"사물 인터넷"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 된 것으로 보고, 이를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관련 기술들이 국제표준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.

□ 기술표준원은 금년부터 IT융·복합분야 표준화 추진 체계인 "표준화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"을 개발하여 미래 기술 표준 선도를 위해 **10대 주요 분야***에 대한 **표준화 프레임워크**** 개발을 중점 추진 해 나갈 예정이다.

* 빅데이터, 클라우드 컴퓨팅, 스마트미디어, 소프트웨어 생산 플랫폼, 의료 정보, 그린 ICT, 지능형 교통정보, 머신 소셜라이제이션, 모바일 카드, 정보보안

** **표준화 프레임워크**는 우선 IT융합분야 전략적 표준화 분야를 먼저 선정하고 각 분야별로 생태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표준화 이슈를 조사하고, 이를 중장기적 관점의 로드맵을 통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.